

✓ 진로교육 바로 알기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1] 진로체험과 진로탐색

고등학교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 목표를 세워 이루어나가는 시기로,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진로체험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관심 영역이나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사회와 일의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회 직업현장이나 대학을 방문해, **일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기도 하고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직업 세계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진로체험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 고등학교 시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계획하는 단계이므로, **관심 있는 분야에 비교적 깊이 있는 진로체험**을 겪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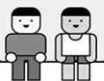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면 대학교 혹은 대학의 학과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 체험’이나 ‘학과 체험’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고, 졸업 후 사회에 바로 진출할 계획이라면 선호하는 직업 분야에서 ‘인턴 체험’이나 ‘업무 보조’ 경험을 가져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다 생동감 있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체험처 정보, ‘꿈길’이나 ‘커리어넷’ 등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진로체험 정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 쓰는 순서

1. 진로체험과 진로탐색
2. 진로체험을 통한 미래설계
3. 학부모가 만들어가는 진로체험
4. 진로체험 길라잡이

✓ 진로상담, 똑..똑..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Q

저희 아이는 언어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어려서 말도 빨리 시작했고,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성적도 우수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에게 해외에 자주 다니면서 활약할 수 있는 직업으로 어떤 것들을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A

해외에서의 활동이 많거나 외국과의 교류가 잦은 직업 및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관광 : 여행사의 투어가이드, 여행상품개발자, 항공사의 조종사·승무원

무역·영업·판매 : 수출입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무역·영업·마케팅 담당자, 머천다이지

방송·언론 : 기자, 리포터, 해외 특파원 **건설·항만** : 엔지니어, 기술 개발 연구원, 해외 주재원

외교·문화·공연·전시 : 외교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전문직원, 공연 및 전시 기획자, 통역사

이렇듯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직업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가 가까워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직업 분야에서는 해외 활동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의 활동 기회에 중점을 두어 직업을 찾기** 보다는 **자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먼저 탐색한 후, 그 분야에서 해외 활동 기회가 많은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조금 돌아가더라도 진정 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 김윤하(물리치료사)

■ 강해지기 위해 무술을 배웠어요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윤하 씨는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강해지기 위해 무술을 시작했다. 태권도나 합기도보다 좀 더 독특한 무술을 찾아 불교의 전통 무예인 선무도도 배웠다. 그러던 중, 경주에 선무도 단련을 바탕으로 한 불교 계통의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학을 결정했다. 학교에서 윤하 씨는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찾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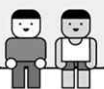
윤하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다만, 무술이 아닌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은 확신했다. 그래서 무술 다음으로 관심이 있었던 일본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우선 일어일본학과에 진학해 보기로 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의사인 친척 형의 병원에서 일을 돕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흰 가운을 입은 자신에게 환자들이 의사인 줄 알고 증상에 대해 상담을 해 왔다. 그럴 때마다 원장님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서 “나도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 것이다. 무술로 단련된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결부된 직업이 없을지를 찾았고,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왔다. 목표가 생기자 지체 없이 일어일본학과를 자퇴하고 물리치료과가 있는 학교에 새로 입학했다. 이후 한 번의 편입을 거쳐 물리치료과를 졸업한 후 드디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었다.

■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돼요

윤하 씨는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겉으로 드러난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평소 어떤 잘못된 습관이 병을 키웠을지까지 생각하며 진료에 임한다. 대학을 바꿔가며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지만, 약간 돌아서 가더라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행복함을 느낀다. 특히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여러 진로체험을 통해 보건의료직에 대한 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다. 윤하씨는 말한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없더라도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요.”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 진로소식



진로체험활동 참가해요!

지역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천안
명칭	주말과학체험마당	나노융합실용화 직업체험	과학·천문교육체험	2015년 사서가 되고 싶어요	천문과학체험
장소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05(동부도서관)	천안홍대용과학관
기간	2015.04.04 ~ 12.27	2015.03.30 ~ 2016.02.29	연중 운영이나 따라 특정일이 따로 있음	2015.04 ~ 2015.12 (수, 목, 금)	연중
사이트	http://www.ienet.re.kr/	http://www.npac.or.kr/	http://gise.gen.go.kr/	http://career.use.go.kr/	http://www.cheonan.go.kr/
문의	032-751-340	053-602-1834	220-9811, 220-9802	052-241-2300	041-564-0113
QR코드					